

자료제공: 2022. 12. 28.(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반

자원회수시설 추진반장	고석영	2133-9930
자원회수시설 추진팀장	권혁영	2133-9932
담당자	이경춘	2133-9933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2쪽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마쳐...주민과 소통 계속

- 12.28.(수) 10:00,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개최...주민 120여명 참여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결과 설명...자원회수시설 증설에도 환경영향 거의 없어
- 일부 주민 소란 있었으나 주민설명회는 진행...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실시
- '23.1.25.까지 주민의견 수렴...주민의견 수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할 것

-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12월 28일(수) 오전 10시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주민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설명회는 입지 후보지가 위치한 마포구 외 인근 5개구인 은평, 서대문, 영등포, 강서, 양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설명회로서 후보지인 상암동 인근 5km 지역에 대한 자원회수시설 증설로 인한 환경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주민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상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법적 절차이다. 서울시는 12월 21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

장소 10곳과 온라인을 통해 공람 중이며, 내년 1월 25일까지 주민의 견을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 주민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시는 현장 측정,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원 회수시설 증설에도 상암동과 인근지역의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 등 배출량이 허용기준치를 만족시킨다고 설명했다.
-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는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사전등록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사전등록 마감으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였으며, 약 100여 명이 시청하였다.(12.28. 12시 현재, 조회수 717) 시는 추가 설명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12월 29일(목)까지 설명회 요청을 받아 내년 1월 초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설명드리는 자리였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